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오징은 "죽음에 가까우므로 흉하다. 사생을 초탈한 사람만이 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또한 유자(儒者)의 말이 아니다.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은 바로 낮과 밤의 도이다. 그것을 초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신선이 그인가? 그런데 단약(丹藥)을 복용하면 불로장생한다는 설은 예로부터 효과가 없었다. 석시가 그인가? 그런데 그는 70세 정도에 죽어 겨우 중간 정도의 수명을 누렸다. 두 학파의 주장이 괴이하여 실제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들이 상세하게 논의하였다. 만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죽지 않고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이인(異人)이 있어야만 한다. 어찌하여 사람들은 그를 볼 수 없는가? 복희씨로부터 공자에 이르기까지 뭇 성인들은 이미 가벼렸으니 이들은 모두 기울어지는 것을 슬퍼하는 흉함을 면하지 못한 이들이란 말인가? 후세에 정절을 지킨 이들도 오히려 여기에 통달하였다. 이른바 "애오라지 변화를 타고 다하여 돌아가니, 저 천명을 즐긴다는 말을 의심하리오!)가 이것이다. 하물며 성인은 어떠하겠는가? 사물의 끝과 처음은 모두 음양이 모이고 흩어진 결과이다. 비록 길고 짧음, 앞과 뒤의 차이는 있지만 돌아간다는 점에서는 한결같다. 천지가 유구하다 해도 이 역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오징이역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만일 '깨달은 사람은 그 마음이 사생을 초탈하여 근심이 없다' 고 한다면 거의 맞을 것이다.

육오(六五) 물 흐르듯 눈물을 흘리며 슬퍼서 탄식하는 듯하면, 길하리라[出涕沱若, 戚嗟若, 吉].(출제타약, 척차약, 길)

오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오는 중복된 이(離)괘의 주인이며 밝은 군주를 이어 군주의 지위를 계승한 자이다. 의려(倚慮)에 거처하면서 명령하거나 경계하지 않는다. 곡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되 물 흐르듯 흘리는 지경에 이르고, 상(喪)중에 거하면서 슬퍼하되 탄식하듯 한다. 아버지를 계승하게 됨을 슬퍼하고 왕위를 얻게 된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니 천자의 지위를 계승한 효자이다." 항안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사는 반역하는 아들로서 불처럼 핍박한다. 육오는 순종하는 아들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즐거워하지 않는다. 사와 오의 길하고 흉함을 알 수 있다."

내가 생각건데, 오징은 효자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느끼는 정서를 잘 묘사하였고, 항씨의 설 또한 순종을 권면하고 반역을 경계하는 것이다. 다만 오징이 의려에 머물 때라고 본 것은 타당치 않은 듯하다. 상중이라 의려에 거처할 때야말로 비오듯 눈물을 흘리는 때이다. '약(若)이란 이와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의려(倚慮)에 거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것이 비록 거상을 잘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또한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 곧바로 길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는 다만 효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정서를 대략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아버지가 늙어 자신이 대신하여 일을 주관하거나, 상을 마치고 정사를 볼 경우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는 아지만 항상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듯하므로 '약(若)'이라고 하였다. 그가 진실한 효심과 애모하는 마음을 죽도록 잊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아 종묘 사직을 보존하여 왕업을 후세에까지 드리울 수 있으므로 길하다고 본것이다. 이는 바로 왕공(王公)의 일이므로 「상전」에 "왕공에 걸렸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구삼은 성질이 강건하고 중하지 않으며 암울한 때에 거하여 쇠진함을 슬퍼하고 근심하여 비록 괴로워하더라도 면할 수가 없으므로 흉하다. 육오는 중하고 순종하면서 높은 지위를에 거하여 밝음의 주인이 되어 융성하고 충만한 것을 근심하여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길하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27)

논 어 해 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8편 태백(泰伯)

제4장

증자[曾子]가 병이 심해지자 맹경자가 문병을 갔는데 증자가 말하였다. "새가 장차 죽음에 이르면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이 장차 죽음에 이르면 그가 하는 말이 선해 집니다. 군자[君子]가 도를 실천하는데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몸가짐에는 난폭하고 오만함을 멀리해야 되고, 안색을 바르게 하여 신의가 있음이 드러나야 되고, 이 말을 입밖에 내는 데는 비루[鄙陋]하고 사리에 어긋남을 멀리해야 됩니다. 제기[祭器]를 다루는 일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유사[有司]가 따로 있는 겁니다."

[원문]

曾子有疾이시거늘 孟敬子問之러니 曾子言曰 鳥之將死哀矣하고 人之將死에 其言也善이니라 君子所貴乎道者三이니 動容貌에 斯遠暴慢하며 正顏色에 斯近信矣며 出辭氣에 斯遠鄙倍矣니 邊豆之事則有司存이니라. [증자유질이시거늘 맹경자문지러니 증자언왈 조지장사애하고 인지장사에 기언야선이니라 군자소귀호도자삼이니 동용모에 사원포만하며 정안색에 사근신의며 출사기에 사원비배의니 변두지사즉유사존이니라.]

[이해]

맹경자[孟敬子]는 노나라 대부[大夫] 중손씨[仲孫氏]로 시호[諡號]가 경[敬]. 이름은 첩[捷]이다. 증자가 앞서 열거한 세 가지는 몸을 바르게 하는 데서 저절로 발현되어지는 것으로 외부적인 것에서 추구[追求]가 불구하고 마지막 제기[祭器]를 관리하는 것은 소위 말단적인 예법인데다 그것을 맞아 보는 유사[有司]가 있다. 증자는 부단한 자기수양을 통해 보다 큭 인물이 되리라는 뜻을 말하고 있다.

제5장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유능하면서도 무능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많이 알면서도 식견이 적은 사람에게 물어보며.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차 있으면서도 비어 있는 것 같고. 자기에게도 잘못하여도 따지지 않는 일을 지난날 내 친구 한사람이 이를 실천하였다."

[원문]

曾子曰 以能問於不能하며 以多問於寡하며 有若無하며 實若虛하며 犯而不校를 昔者吾友가 嘗從事於斯矣러니라.

[증자왈 이능문어불능하며 이다문어과하며 유약무하며 실약허하며 범이불교를 석자오우가 상종사어사의러니라.]

[이해]

여기서 증자[曾子]가 말하는 학문과 인격의 완성을 이룬 친구는 공자의 애제자 안회[顏回]를 가리킨다.

제6장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열서너 살의 어린 임금을 부탁할만하고. 사방 백리쯤 되는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으며. 중대한 비상사태의 임하여 그 절개를 빼앗을 수 없다면 그가 군자다운 사람일까? 군자다운 사람이다."

[원문]

曾子曰 可以託六尺之孤하며 可以寄百里之命이요 臨大節而不可奪也면 君子人也아 君子人也니라. [증자왈 가이탁육척지고하며 가이기백리지명이요 림대절이불가탈야면 군자인야아 군자인야니라.]

[이해]

그 재능이 가히 어린 임금을 보좌하여 국정을 대신 다스려 사직[社稷]을 안정시키는데 하자가 없고 그 충절이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물이면 가히 군자라 칭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제7장

증자[曾子]가 말하였다. "선비는 도량이 넓고 줏대가 꿋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그 소임은 중대하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자함을 베푸는 것이 자기의 소일이니 또한 중대하지 아니한가! 그 일이 죽은 후에야 끝이나니 또한 갈 길이 멀지 아니한가."

[원문]

曾子曰 士不可以不弘毅니 任重而道遠이니라 仁以爲己任이니 不易重乎아 死而後已니 不亦遠乎아. [증자왈 사불가이불홍의니 임중이도달이니라 인이위기임이니 불역중호아 사이후이니 불역원호아.]

[이해]

홍[弘]은 드넓은 너그러움. 의[毅]는 굳세고 참을성이 있는 것인데 도량이 넓고 줏대가 꿋꿋함으로 풀이하였다. 선비는 일생을 정도와 인의를 구심점으로 살아가야 되므로 그 책임이 무겁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끊임 없이 가지 않으면 안되기에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제8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시[詩]로서 감흥을 갖고. 예[禮]로서 자립하고. 악[樂]으로서 완성한다."

[원문]

子曰 興於詩하며 立於禮하며 成於樂이니라. [자왈 여어시하며 입어예하며 성어악이니라.]

[이해]

시는 읊조리는 사이의 억양반복이 사람의 미혹을 풀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예로서 공경 사양 겸손의 바탕을 다져 절도 있게 행동하면 능히 사물의 이해득실의 동요되지 않고 탁연하게 자기를 세울 수 있으며. 악은 오성십이율이 번갈아 교차되는 가운데 팔음이 조화를 일으켜 사람이 사악하고 더러운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내어 도덕적 품성을 배양시켜 준다.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68회〉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晙) 장군〈20〉

▣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러나 천하의 일은 사람의 예상대로 되지 않고 늘 조변석개(朝變夕改)의 사이에 의외로 돌변하기 쉬운것이다. 별서(별써) 어전회의 비밀이 어대로(어디로) 풍성(風聲)을 누설하였든지 그 음모를 개소문이 이미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심복부하들과 밀회하고 선발별인의 계책을 세워 출발전 모일(某日)에 평양성남(平壤城南)에서 열병식을 거행하오니 대왕과 각부대신들께서 친람(親覽)하심을 바란다고 왕께 주달(奏達)하는 동시에 또 각부에 통고하였다.

각부 살이와 각부대신들이 실로 가기는 실흐(싫으)나 만일 가지 않으면 개소문에게 의심을 사서 대사(大事)에 불리할까하여 일제히 가되 대왕은 존엄을 직히여(지키어) 금병(禁兵)으로 하여금 왕궁을 직히(지키)면, 피(彼:저; 개소문)가 이심(異心)이 있다 할지라도 왕위(王威) 진압되여 감히 발동하지 못할(것)이라하고 그날 모든 대신들이 개소문의 열병식장에 가니, 청아(淸雅)한 군악소리에 안내되여 사전에 예비한 군막(軍幕)내에 좌정케하고 성연(盛宴)을 베푸려(베풀어) 관대(寬待)한 후, 개소문이 실연(實然)히 이러나(일어나) 「반적(反賊)을 잡으라」하는 소리에 사방에서 잠복대기하고 있든(던) 장병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칼과 창으로 일제히 박살(撲殺)하니 임장(臨場)한 대신들도 비록 백전노장이지마는 강약이 부동하여 경각간에 대신 호족 등 수 백명이 일시에 육장(肉醬)이 되고 선혈로써 그 식(式)을 맛첫(마쳤)다.

이에 개소문은 휘하장병을 거나(느)리고 궁문을 덜(들)어가 수병(守兵)을 격파하고 궁중에 돌입하여 영류왕을 살(殺)해도 감히 항거하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개소문의 늠늠한 위풍과 민첩한 행동에 놀랜(란) 까닭이다. 그래서 2십년전 패강구(浿江口)에서 수장(隋將) 「내호아(來護兒)」의 수십만 대군을 한칼에 뭇질려(무찔러)서 승리를 대획(大獲)하여 지용(智勇)이 절륜하다고 천하애 이흠(이름)이 진동하든(던) 영류왕도 의외에 비침하게 개소문에게 죽어버렸다.

개소문은 영류왕을 죽이고 왕의 질(侄;姪;조카) 보장왕(寶藏王)을 마저 와 대왕을 삼은 후 살이(薩伊)의 세습제을 폐지하고 동시에 또한 사부(四部) 살이의 평의제(評議制)도 파하고 자기가 모든 군정(軍政) 대권(大權)을 총람(總攬)하니 고구려 칠백년간에 제왕도 갓(갖)지 못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4. 연개소문의 대당정책(大唐政策)

당나라를 대적(對敵)하여 이를 격멸(擊滅)하고 그로 하여금 고구려에 속국(屬國)을 맨드러(만들어)고(자) 함은 개소문의 평생목적이다. 그래서 소년 때에 중국을 간 것도 물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오 또한 혁명적 수단 써어 대왕을 죽이며 각부호족(各部豪族)을 뭇지(무찌)르는 군정대권을 한손에 거머쥔 것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당나라도 토지의 대(大:크기))와 인구의 중(衆; 많음)이 모두 고구려에 멧(몇)갑절이 되므로 개소문은 앞으로 당나라를 칠라면 고구려가 위력(偉力)으로 전쟁하는 것보다 반드시 열국(列國)세력을 연합하여 정벌(征伐)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때는 고당(高唐) 양국 이외에 다소 열국이 있는데, (갑;甲)은 고구려 남방에 신라 백제가 있고 (乙)은 고구려의 서북방에는 이족(異族)의 나라인 돌궐(突厥)과 고창(高昌) 토욕혼(吐谷渾)이 있다.

개소문은 처음부터 영류왕을 권하여 신라 백제와 강화하고 삼국이 연합하여 당나라와 싸우는 것을 주장하였으나 영류왕이 불긍(不兢)하였으며 (및) 신라 김춘추(金春秋;무열왕武烈王)가 고타소낭(古陀炤娘;김춘추의 딸로 대야성; 지금의 합천의 성주엿던 사위 김품석과 딸 및 그 가족이 백제군에게 몰살당했음-642년)의 구(仇;원수)를 갚게 (하기) 위하여 고구려에 와서 원병을 청하거늘 개소문이 김춘추를 자택에 초청하고 천하대세를 논하면서 김춘추를 권하여 '사구(私仇;사사로운 원수)를 멸이(없이하)고 동종동족(同宗同族)인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서로 연합해서 당나라를 치자' 하였다.

그러나 김춘추는 방금 백제를 공원(功遠;원교근공遠交近攻;먼 고구려를 교섭하여 가까운 백제를 칠)으로 (절치切齒) 부심(腐心)하는 때이므로 결국 이러한 좋은 권고를 덧(듣)지 않고 귀국하고 말았다.

5. 당태종의 전략과 침입의 노선(路線)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는 것은 일조일석의 병(兵;군사)계획적인 일이 않이(아니)고 피(彼;그)가 즉위한 이래로 이미 이십년 동안이나 경영(經營)하였든(던) 것이다.

중국은 진,한(秦,漢) 이후로 흉노(匈奴; 즉 몽고蒙古)의 세력이 극히 쇠퇴하였고 위,진(魏,晉) 이후로는 오호(五胡; 흉노, 선비, 저, 갈, 강)가 중국(북방과 중원)에 잡거(雜居)했으며 그 외에는 비록 회회족(回回族), 고창토욕혼, 불화국(不花國;회면긍會緬絙)과 기타 소국(小國)들이 궐기(蹶起)하여 환경(還境)을 침범하였으나 미기(未幾)에 모두 잔패(殘敗) 되고 오직 고구려만 동남 동북방에서 중국과 대치 되여 홀시(忽視)하지 못했다.

〈다음호에 계속〉

明心寶鑑

명 심 보 감

▣ 正巖 權爀彩 (본원 종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治政篇 解說 (3)

●司馬溫公이 曰(사마온공이왈)凡諸卑幼(범제비유)-事無大小(사무대소)이요 毋得專行(무득전행)하고 必咨稟於家長(필자품어가장)이니라.

해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손아래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고 해야 하느니라."고 하셨다.

●待客(대객)에 不得不豊(부득불풍)이요 治家(치가)에 不得不儉(부득불검)이니라.

해설 : 손님을 접대하는데 있어서는 풍성하게 하되, 살림살이는 검소하게 해야 하느니라.

●太空이 曰(태공이 왈) 痴人(치인)은 畏婦(외부)고 賢女(현녀)는 敬夫(경부)니라.

해설 : 태공이 말 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하느니라."고 하셨다.

●凡使奴僕(범사노복)에 先念飢寒(선념기한)이니라.

해설 : 무릇 노복을 부리는 데 있어서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子孝雙親樂(자효상친락)이오 家和萬事成(가화만사성)이니라.

해설 : 아들이 효도하면 두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일이 이루어 지느니라.

참고 : 司→맡을 사,溫→따뜻할 온, 卑幼(비유)⇒손아래사람,卑→낮을 비, 幼→어릴유, 咨稟(자품)⇒웃람에게 물어봄, 咨→물을 자, 꾀할 자, 稟→품할 품, 毋得(무득)⇒해서는 안된다, 毋→없을 무,(母→어미모, 이 자는 가운데에 위 아래로 점을 찍는다.) 專行(전행)⇒마음대로 하는것, 專→오로지 전, 待→기다릴 대, 豊→풍년 풍, 痴人(치인)⇒바보 같은 사람 또는 어리석은 사람, 痴→어리석을 치, 畏→두려울 외, 敬→공경경, 僕→종복, 使→부릴 사, 先念(선념)⇒먼저 생각함. 飢寒(기한)⇒굶주리고 추운 것, 飢→주릴 기, 寒→찰한, 雙→두 쌍

●時時放火發(시시방화발)하고 夜夜備賊來(야야비적래)니라.

해설 :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밤중에 도적이 드는 것을 방지하라.

●景行錄에 云(경행록에 운)觀朝夕之早晏(관조석지조안)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가이복인가지흥체)니라.

해설 :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밥의 이르고 늦음을 보아 가히 그 사람 집의 흥하고 쇠함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하셨다.

●文仲子-曰(문중자 왈) 婚娶而論財(혼취이논재)는 夷虜之道야(이로지도야)이니라.

해설 : 문중자가 말하기를, "혼인하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나 할 짓이니라."고 하셨다.

참고 : 문중자(文仲子)는 수(隨)나라의 학자 왕통(王通)을 가리킴.

자기의 건의(建議)가 조정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은퇴하여 후진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세민(李世民)을 도와 당(唐)나라를 일으켰고, 어진 재상으로 이름 높은 방현령(房玄齡), 두여회(杜如晦), 위징(魏徵)등을 배출 하였다.저서(著書)로는 중설(中說)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문중자(文仲子)란 그가 죽은 후 문인들이 부른 호다. 防→막을 방, 發→필 발, 夜→밤 야, 備→갖추울 비, 賊→도적 적, 觀→볼 관, 夕→저녁 석, 早→이를 조, 晏→늦을 안, 화할 안, 卜→점 복, 점칠 복, 興→흥할 흥, 替→폐할 체, 바꿀 체, 혼취(婚娶)⇒남녀의 결혼, 이로(夷虜)⇒오랑캐 이, 虜→오랑캐 로.

참고 : (大學) 齊家治國篇(제가치국편)에 -- 所謂治國(소위치국)이 必先齊其家者(필선제기가자)는 其家(기가)를 不可敎(불가교)오 而能敎人者-無之(이능교인자-무지)하니 故(고)로 君子(군자)는 不出家而成敎於國(불출가이성교어국)하나니 孝子(효자)는 所以事君也(소이사군야)오 弟者(제자)는 所以事長也(소이사장야)오 慈者(자자)는 所以使衆也(소이사중야)니라고 했다. (즉)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먼저 그 집을 가지런히 하는 데에 있다" 함은, 그 집을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집을 벗어나지 않고도 가르침을 나라에 이루는 것이다. 효도는 응용해서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고, 공손은 응용해서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며, 사랑은 응용해서 무리를 부리는 방법이니라.고 했다. 治國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 治家부터 하시기를 바랄 뿐이다.

권 오 중(權五重)

⊙ 국립안동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지도위원
⊙ 베트남 참전유공전우회 경상북도지부 감사
⊙ 안동지원 민사조정위원회 위원
⊙ (전) 경상북도안동교육청 교육장

경북 안동시 말재길 23 삼성@ 302동 1005호
TEL : (054)852-0722 H·P : 010-9946-3722
E-mail:koj46818@hanmail.net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석 보 중 학 교

교장 권 오 진

36560 경북 영양군 석보면 석보로 572-6
사무실 054-682-8290
FAX : 054-682-0209
C·P : 010-9778-4223
E-mail:kog5654@korea.kr